전호근 <맹자, 천하를 다스리는 자를 다스린다>

2강 독락(獨樂)을 경계하다
◆ 1교시 강독 - 독락(獨樂)이라구요?

▲ 임금이 홀로 즐겨서는 아니 되옵니다

오늘 주제를 제가 왕도와 혁명의 사이로 정했습니다. 이 다음에는 왕도정치론, 그 다음에는 또 다시 혁명론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따로 있을 텐데, 오늘은 맹자와 대화한 여러 임금들과 그 대화 속에서 왕도와 혁명이 미묘하게 교차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같이 함께 살펴보시면서 맹자의, 그 당시 권력자와 지식인의 관계에 대한 맹자의 생각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1페이지를 보시면, 맹자 두 번째 문장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문장의 내용이 대략 저런 내용이었죠. 양나라 혜왕이 맹자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이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라며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롭게 해주시겠지요" 하고 요구하죠. 맹자가 받아칩니다. 어떻게 하면 이롭게 할 수 있다는 답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왕께서는 어찌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오직 인의가 있을 따름입니다. 받아치죠? 두 번째 문장도 거기와 비슷합니다. 처음에 한 번 보시죠. 제 2장이 이렇게 되어있고 제가 제목을 '독락(獨樂)이라구요?' 이런 식으로 붙여놓았는데, 獨樂은 혼자 즐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獨樂이라고 하면 독야청청하는 선비의 기상을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獨樂이라 하는 것은 선비가 혼자 즐기는 게 아니라 요 임금이 홀로 즐기는 겁니다. 임금이 홀로 즐긴다는 이야기는 백성들은 고통스러운 삶에 허덕이고 있는데, 혼자서 즐겁고 혼자서 잘사는 거죠. 그게 獨樂입니다. 그런 獨樂이 가능하냐는 이야기를 맹자가 양나라 혜왕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게 맹자의 대답이고요.

▲ 현자에게서 먼저 배우고 신하로 삼아라

이런 식의 태도에서도 맹자와 군주와의 관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맹자는 한마디로 지식인과 군주의 관계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안 나옵니다만, 學焉而後臣之. 언은 어조사와 대명사 정도로 '이 사람에게서' 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에게서 먼저 배우고, 군주는 지식인, 현자에게서 學, 먼저 배우고 그런 뒤에 그 현자를 臣, 신하로 삼는다. 훌륭한 사람을, 군주가 지식인을 신하로 삼는 것까지는 인정하지만, 신하로 삼기 이전에 먼저 그 지식인에게 배워야한다는 겁니다. 賢者라 그러면 사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현대 사회의 그 지식인과는 조금 다르긴 해요.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지식인이라는, 그 지식인의 역할이라고 할 때 그 때 지식인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죠. 기능적인 의미만 지닌 것이 아니라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리더로서의 지식인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점이 있죠. 이런 사람에게서 먼저 배우고 나서 그를 신하로 삼는다. 이게 맹자의 기본 입장입니다.

www.artnstudy.com

그러면서 고사를 이야기하는 게, 탕임금과 이윤(伊尹)의 관계. 이윤은 모든 유가 지식인들이 꿈꾸는 2인자입니다. 2인자이면서 탕임금을 보좌해서 혁명을 일으키죠. 그래서 천하를 차지합니다. 천하를 다스려요. 얼마나 권력이 강하냐면, 탕임금의 아들인 태갑이 실정을 저지르니까 이윤이 쫓아내버립니다. 나는 당신같이 어지러운 사람과는 같이 지낼 수 없다, 그래서 동이라는 곳으로 쫓아내버려요. 쫓아냈다가 나중에 태갑이 뉘우칩니다. 뉘우치니까 다시 복위시킵니다. 그 정도의 권력을 누렸던 사람인데, 어쨌든 후세의 유가 지식인들이 다 이런 위치에 올라가고 싶어 하죠. 예를 들어 그와 비슷한 위치에 올라간 사람이 제갈공명이나 이런 수준의 지식인들인데, 2인자이면서 동시에 천하를 다스리는 역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탕임금이 이윤에게 먼저 배웁니다. 學焉而後臣之, 그래서 湯之於伊尹 學焉而後臣之. 탕임금이 이윤에게서, 먼저 이 사람에게서 배운 뒤에 그 이윤을 신하로 삼았다. 故(고)로, 不勞而王, 그 때문에 不勞, 힘들이지 아니하고, 王, 천하의 왕자가 되었다. 왕도정치를 이루었다.

그리고 또 왕도정치는 아니지만, 제나라 환공이요, 桓公之於管仲. 관중 유명하죠. 제나라 환공이 관중에 대해서, 學焉而後臣之, 먼저 배운 뒤에 이 관중을 신하로 삼았다. 그래서 不勞而霸, 왕자는 못되었지만 패자는 되었다. 환공도 대단한 군주죠. 맹자는 환공 정도를 우습게 압니다. 제나라 환공이나 진나라 문공 정도는 좀 우습게 아는데, 왕도정치 한 이른바 요순우탕문무주공(堯舜禹湯文武周公), 이런 군주가 아니면 맹자는 일단 아래로 보는데, 그래도 환공도 보통 군주가 아니죠. 예를 들면 관중이 어떤 사람이냐면. 제나라가 어지러워지니까, 환공이 임금이 아니었을 때, 소백, 환공이죠. 소백을 보좌해서 먼저 떠난 게 포숙아입니다. 포숙이요. 포숙이라고도 하고, 포숙아라고도 하는데, 포숙아가 먼저 소백을 모시고 다른 나라로 떠납니다. 제나라의 상황이 어지러워지기 때문에 그대로 있었다가는 자신의 생명도 위험하고 나라도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먼저 떠나요. 그 다음에 관중이 공자 규를 모시고 떠나는 게 일 년 뒤의 일입니다. 정보력에서 포숙아와 정보의 차이가 있죠. 포숙아는 제나라의 세족 중의 하나거든요. 고씨, 국씨, 포씨 제나라의 세족들입니다. 정보가 가장 많은 집단이죠. 포숙아는 제나라의 상황을 먼저 읽은 거죠.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 떠납니다. 떠나는데, 관중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일 년 정도 지난 뒤에 떠나요. 나중에 제나라로 다시 들어가서 왕이 되려고 할 때, 소백이 먼저 들어가서, 소백이자 환공이 제나라로 들어가서 먼저 임금 자리를 차지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니 공자 규는 갈 곳이 없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공자 규를 모시던 관중과 소홀 중에 소홀은 같이 죽었어요. 자기가 모시던 주인이 죽으니까 같이 죽었는데, 관중은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환공에게 붙잡혀가는 신세로 환공에게 갑니다. 환공이 그 관중을 신하로 삼습니다. 그 이전에 관중이 환공을 죽이기 위해 화살을 쏩니다. 혁대 고리에 맞아서 살아요. 그런 사람을 환공이 등용하는 거죠. 보통 군주가 아니죠. 자기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등용하니까요. 물론 포숙아가 옆에서, 제나라 임금으로 만족하고 싶으면 죽여도 되지만, 천하의 패자가 되고 싶으면 관중을 신하로 삼아야 된다, 이래서 환공이 관중을 신하로 삼아서, 그 이후 수십 년간의 패자가 되는 게 바로 이 관중 때문이죠.

그래서 소동파 같은 경우는요, 포숙아가 바로 제나라를 치세로 이끈 사람이고 관중은 오히려 제나라를 어지럽힌 사람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관중이 죽고 난 다음에 제나라가 어지러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후세를 기약하지 못한 관중에게 책임이 있고, 관중 같이 훌륭

www.artnstudy.com

한 사람을 등용하게 해서 정치를 하게 한 것은 포숙이다, 이런 식으로 포숙을 높이는 그런 이야기까지 있는데 어쨌든 왕자와 패자 이런 사람들 모두 다 지식인과의 관계 속에서 정치인이 되기도 하고 현자이기도 합니다. 백성들이 나아가야할 길이 어디인지 아는 그런 사람에게 먼저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그를 신하로 삼아야한다. 그러면 왕자도 될 수 있고 패자도 될 수 있다는 거죠.

▲ 어질지 못한 사람은 즐길 수 없다

맹자 스스로, 나는 관중 같은 사람이 되려고 원하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본받는 건 이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본받고자 하는 것이지, 관중 정도는 안중에도 없다. 그런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함부로 오라 가라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아직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맹자의 앞쪽 부분에 나옵니다. 그런 관점이 일단 맹자가 생각하는 그 당시 군주와 지식인과의 관계입니다. 이는 중국에서 수천 년 동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 지속되는 지식인들의 권력에 대한 견제라는 정서가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간혹 드물게 군주와의 관계 속에서 왕권을 강화한다든지, 예를 들면 다산 정약용처럼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체로 권력에 대한 견제로 기본적인 책무를 지는 게 현인, 지식인의 역할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맹자 당시에는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고요.

그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 한 번 같이 읽어보죠. '2장 獨樂이라구요?' 이렇게 되어있고 본문이 나오는 데요, 보겠습니다. 孟子見梁惠王, 맹자가 양나라 혜왕을, 見, 만났다. 王立於沼上, 왕이 沼上, 연못가입니다, 沼는 연못입니다, 연못가에 서 있었다. 못이죠. 그리고 또 顧鴻鴈麋鹿曰, 이렇게 나오죠. 그것은 큰 기러기, 작은 기러기, 큰 사슴, 작은 사슴, 예를 들어 같은 새라도 백조나 고니나 이런 큰 종류의 새들이 있고, 보다 작은 종류의 새들이 있죠. 사슴류도 사슴 같은 경우도 있고 고라니 같은 상대적으로 작은 그런 사슴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홍안위록(鴻鴈麋鹿)을 顧, 왕이 돌아보면서 맹자에게 묻습니다. 賢者亦樂此乎, 어진 사람도 이런 것을 즐깁니까, 이렇게 묻죠. 연못이나 홍안미록 같은 거요, 전부 수집품입니다. 沼라고 하는 건 연못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누대도 있고, 전체가 또 동산이고, 왕의 동산이라 합니다. 이게 사냥터구요. 사냥터라는 게 동산이 있고, 그 안에 또 누대도 있고, 전망대입니다. 구경하는 전망대고, 그 안에 연못도 있고, 거기에 홍안미록이 있는 겁니다. 숲 속에는 사슴 종류, 미록, 그리고 연못에는 홍안(鴻鴈)이 있는 거죠. 새 종류, 커다란 새. 鴻과 鴈, 麋와 鹿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권력자들이 자신의 영토에 규모가 큰 건축물을 짓죠. 그게 문명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식으로 나타납니다만, 이집트는 피라미드가 있고, 중국은 고궁이 아니라 금성, 자금성이 있죠. 그리고 연못이 있고. 이것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주지육림(酒池肉林) 입니다. 술로 연못을 만들고, 육고기로 숲을 만들었다. 酒池肉林, 예를 들면 하나라 마지막 임금 걸왕이 이 짓하다가 망했고, 은나라 마지막 임금 주왕도 그랬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주지육림이나 고대광실이나 이런 것들을, 수많은 수집품들을 폭군들만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꼭 진시황이니 뭐니 이야기합니다만 폭군들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유가의 성인으로 일컬어지는 사람 중에 주공이요, 주공도 이윤처럼 2인자입니다. 자기가 天子, 임금은 아니지만, 임금인 성왕이 자기의 조카란 말이에요. 조카를 보좌하면서 천하를 직접 다스립니다. 주

www.artnstudy.com

나라의 예악문물을 다 제정한 게 주공으로 되어있어요. 주공도 이를테면 낙양을 경영한단 말이에요. 낙읍((洛邑), 주나라가 이제 서쪽 지역, 기주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어쨌든 동쪽 그러면서 동남쪽 이쪽으로 영역을 확장해야 하니까 낙양 쪽으로 가서, 낙읍을 경영합니다. 낙읍을 성공적으로 경영한 다음에 질탕하게 놀아요. 질탕하게 노는 데 그것을 유상곡수(流觴曲水)라고 해요. 流觴이라고 하는 것은 술잔을 띄운다는 것입니다. 曲水는 굽이굽이 돌아가는 물길을 이야기해요. 경주 포석정에 가시면 그 유상곡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주의 팔대명물 중에 유상곡수 그러면 포석정이거든요. 유상곡수라는 말은 주공의 낙읍경영에서 나오는 겁니다. 낙읍을 성공적으로 경영하고 나서 그 사이에 엄청난 이야기 많은데요. 유상곡수를 만들고 여기서 놀아요. 술잔을 띄울 수 있는 수로를 만든 다음에 거기서 다른 신하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거죠. 유상곡수라고 하면 후세 사람들이 칭송하는 아름다운 문화적 행위로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왕희지, 필법의 대가이긴 하지만 문장의 대가이기도 하죠. 고문진보(古文眞寶)에 난정기(蘭亭記) 나오잖아요. 난정기 속에도 보면 유상곡수 이야기가 나와요. 왕희지 같은 사람이 가장 세련된 형식의 문화적 행위로 유상곡수를 이야기한 건데, 결국 술 마시고 논 겁니다. 주왕도 술 마시고 놀고, 왕희지도 술 마시고 놀고, 주공도 술마시고 놀고, 그렇게 술 마시고 논 건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酒池肉林으로 엉망진창이 되느냐, 流觴曲水로 세련된 문화적 행위냐의 차이가 나는 거죠.

맹자가 樂을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양나라 혜왕도 똑같이 연못 만들어 놓고, 누대 만들어 놓고, 수집품들 홍안위록(鴻鷹麋鹿), 큰 새, 작은 새, 큰 사슴, 작은 사슴 이런 것들 다 가져다 놓고. 수집품들이에요. 이거 다 보여주려고 한 거거든요. 맹자 같은 사람들 오면 뽐내는 겁니다, 거기서. 딱 보여주면서 폼나게 말이죠. 베르사유의 궁전에는 880개입니까? 800여개의 방에다가 미술품 걸어놓고 보여주려고, 폼나게 하려고 했다는 거거든요. 수집의 욕구라고 하는 건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건데, 꼭 그렇지는 않네요. 우리나라 수집가들은 창고에 숨겨놓죠. 아주 웃기는 수집입니다. 왜 그럴까 하니, 그 미술품이라고 하는 게 전혀 세금을 안낸다면서요? 그렇다고 제가 미술품에 세금 매기자는 것은 아니고요. 왜 세금을 안 붙였겠어요. 그거 진흥하기 위해서 한 거죠. 우리가 훌륭한 예술가 밑에 또 다른 훌륭한 예술가가 태어나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훌륭한 예술가는 자기 새끼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 모양이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 장려책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면, 아마 우리가 예술작품을 구경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춘추전국시대 사상가들 중에서 묵자 같은 경우는 아주 격렬하게 귀족예술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비악이죠. 일체의 음악행위 다 끊어버려야 합니다. 이거 다 사치스러운 거 아니냐? 만약에 이 논리를 극한까지 밀고 나가면 모든 예술 작품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 인문적 행위도 다 필요가 없어요, 그저 나가서 다 노동이나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노동이 가장 훌륭한 가치라고 인정하더라도 그 외에 인문적 가치 또한 노동이라는 신성한 영역에 끌어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묵자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맹자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樂이라 하고, 음악이라 하더라도 임금이 혼자 즐기느냐, 다름 사람들과 함께 즐기느냐는 차이를 두는 거죠. 여기에 양나라 혜왕 같은 경우는, 맹자가 보기에, 전혀 백성들과 함께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가 다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www.artnstudy.com

오로지 자기 이익이라고 하면 백성들을 혹사시켜서 자기 이익에 복무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질문에 맹자의 대답이 좋을 수가 없죠. 혜왕의 질문이, 賢者亦樂此乎, 어진 사람들도 이런 것을 좋아합니까 하고 보여 준거에요. 폼나게, 홍안위록 돌아보면서요. 고니, 사슴, 고라니 이런 것 쭉 돌아보면서, 당신같은 어진 사람들은 이런 것 즐깁니까, 이런 식으로 폼나게 물었는데, 맹자의 이야기가 뭐냐면, 賢者而後樂此. 어진 사람 이후에라야 이런 것을 즐길 수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양나라 혜왕이 물어본 현자, 이 현자는 맹자를 지칭해서 한 말이죠. 당신같은 현자도 이런 것을 즐깁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맹자가 그것을 어떻게 받았냐면, 賢者인 뒤에야 이런 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때 현자는 賢君을 의미합니다. 다르죠. 그리고 대답의 성격 자체가 치는 거죠? 어진 사람이라야 이것을 즐길 수 있고, 당신처럼 어질지 못한 군주는 비록 이런 것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맨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雖有此, 비록 수유대지조수(雖有臺池鳥獸), 비록 누대나 연못이나 새나 짐승이나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不樂也, 즐길 수 없습니다. 간단하죠. 바로 이 '賢'자의 차이점을 이해하면 양나라 혜왕의 이야기와 맹자의 이야기, 이 대화가 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지 알 수가 있겠죠. 좀 더 살펴보죠.

우선 정리를 해보구요. 왕이 연못가에 있다가, 홍안위록을 돌아보면서, 수집품들을 돌아보면서 어진 사람도 이런 것을 즐깁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자기 소유물을 과시한 겁니다. 일종의 양나라 혜왕이 가진 문화적 욕구인데, 그것을 과시하려고 맹자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맹자가 어진 사람인 뒤에야, 어진 사람 이후이라야 이것을 즐길 수 있다, 孟子對曰 賢者而後 樂此, 어진 사람이라야 그런 뒤에 이런 것을 즐길 수 있으니, 不賢者雖有此不樂也 , 어질지 못한 사람은, 바로 당신 같은 사람은, 비록 이런 것을 갖고 있다고는 하나 즐기지 못합니다. 왜? 바로 그 다음에 혁명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왕도(王道)와 혁명(革命)의 사이라는 주제를 이 시간에 붙인 것입니다.

◆ 2교시 독락(獨樂), 그거 안 되는 겁니다

▲ 문왕의 동산 - 우리 임금 최고

그 다음에 시운(詩云)하고 나와 있는 내용은, 바로 문왕(文王)의 이야기입니다. 이 문왕의 文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공자의 文도 바로 이 문왕에서 따온 것입니다. literature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文이 道에요. 도는 당연히 治道고요. 요순이 천하를 다스린 道, 이렇게 됩니다. 유가의 치도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바로 문왕인데, 문왕이 어떤 식으로 정치했느냐를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왕도 똑같이 대지조수(臺池鳥獸)를 가집니다. 누대를 만들고 연못을 만들고, 또 동산을 만들었어요.

囿라고 하는 글자는 참 묘한 게요, 재미있습니다. 보면, 원래 이 囿자가 '동산 유'인데, 이 囿자가 본래 갑골문자에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田, 이게 밭전 자죠? 토지를 의미합니다. 토지인데, 토지도 여러 종류가 있죠. 밭도 있고 논도 있고 집터도 있고, 또 사냥터도 있고

www.artnstudy.com

어쨌든 다 토지죠. 갑골문에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전부 초목이 성장하는 모습이거든요. '날생 자'와 같아요. 땅이 있으면, 이렇게 생긴 게 '날생 자'인데, 이것들을 같이 씁니다, 갑골문에서요. 전부 농장을 의미하죠? 풀이 자라는 초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게, 갑골문에서 이렇게 나오고요. 이게 변합니다. 변한 게 이렇게, '있을 유'자는 아시다시피 손입니다. 이것도 이런 '오른 우'자 쓰면 손이고, '왼 좌'도 이렇게 쓰면 이것도 손입니다. 이것은 왼손이고 이것은 오른손의 차이만 있죠. 이거는 왼손, 왼손에, 공자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제 생략한 것입니다. 눈금인데요. 왼손에 자를 들고 측정을 해본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오른 우자는 손으로 모든 일을 하고 있을 때, 입으로 손이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을 때 돕는다는 뜻으로 씁니다. 예를 들어서 두 손에 다 물건을 들고 있고, 또 다른 물건을 들 때, 입으로 잠깐 종이컵을 잠깐 문다던 지 이런 게 '오른 우'자입니다. 여기 있는 '있을 유자'는 月자가 육달월이에요. 고기에요. 손에 고기를 갖고 있는 게 有입니다. 有는 부유하다는 뜻이거든요. 고기를 잡고 있는 것을 부유하다고 표현한 겁니다. 이게 이렇게 바뀐 거죠. 본래는 초목의 생장을 나타내는 그런 농장의 소유주였다가, 나중에는 가축을 비롯한 육고기를 키우는 농장을 가진 사람으로 囿자가 바뀐 겁니다. 이런 데서 문자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알 수 있고요. 이건 잠깐 다른 이야기였고,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요. 이때의 囿라고 하는 것은 원유(苑囿)의 뜻이에요. 원은 사냥터라면, 유는 짐승들을 키우는 곳, 방목지, 이런 의미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홍안위록, 이런 게 다 여기 있는 거죠. 기러기, 고니, 백조, 사슴, 고라니, 노루 이런 게 있는 건데, 이런 것을 지어 놓고, 거기에 전망대인 누대도 세워놓고, 누대는 구경거리도 되고, 동시에 적이 쳐들어올까를 미리 방비하는 역할이 되고, 沼는 연못입니다.

이런 것 다 만들어놨는데, 문왕도 똑같이 만들어놨는데, 백성들이, 經始靈臺, 이 시경의 구절을 보면요. 전부 문왕이 以民力爲臺爲沼, 백성들의 노동력을 동원해서 爲臺, 누대도 만들고, 爲沼, 연못도 만든 거예요. 그럼 결국엔 백성들이 싫어해야 할 텐데, 而民歡樂之, 백성들이 도리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歡樂之, 그냥 낙이 아니라요, 환락이라 하니까, 즐거워하는 정도가 아주 큰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누대의 명칭을 靈臺다. 이때의 靈은 신령스럽다, 훌륭하다 이런 뜻입니다. 신령스러운 누대이고, 또 신령스러운 연못이고, 신령스러운 동산이다. 이런 식의 명칭을 붙였다는 게 시경에 나옵니다. 이게 왕도에요. 백성들이 그 임금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다 달려와 가지고, 서민자래(庶民子來), 자식처럼 다 달려와서 누대도 만들어주고, 연못도 파주고, 동산도 만들어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임금 최고' 이런 것이죠. 근데 주에 가보면 단순히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비슷한 다른 이야기로 한 번 넘어가보죠.

▲ 문왕의 좁은 70리 동산, 선왕의 넓은 40리 동산

제나라 선왕이 제나라 선왕이 맹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문왕이 가진 동산, 문왕지방칠십리, 문왕의 동산은 사방 70리 였다. 굉장히 크죠. 그 70리라 그렇게 되면, 1리가 4km 내지 5km잖아요.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요. 다 다르죠, 척도라는 게요. 다 감안해야죠. 예를 들어서 1척이다 했을 때, 논어에 보면 육척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척이, 한 자가 몇 cm입니까? 33cm 이러잖아요. 그러면 육 척이면 180cm가 넘죠. 근데 180cm 신장이 넘는 것, 이거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쓰는 척도법과 달라요. 그래서 주나라

www.artnstudy.com

척도법, 주척, 또 하척, 하척은 30cm 넘어요. 하척, 당척은 30cm 넘습니다. 우리와 비슷하죠. 우리가 척을 쓰지는 않습니다만 주척은 얼마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척과 같은 걸 계산을 할 때 모델로 삼는 게 진나라 진시황의 병마 용갱을 쓰거든요. 병마 용갱이 평균 신장이 180cm인데, 그리고 그 당시 척도법으로 성인 남자의 평균이 8척이라고 되어 있어요. 계산해보면, 180 나누기 8 해볼까요? 180 나누기 8 하면 22.5cm 정도 나옵니다. 1척이 22.5cm에요. 22.5cm 곱하기 6하면 135cm가 나와요. 135cm면 고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지 않고 33cm 곱하면 180cm 넘는 거구의 어른을 두고 고아라 얘기하는 건 맞지 않죠.

어쨌든 方 70리라고 할 때에 方은 사방이라는 뜻이고 70리라는 것은 1리가 4 내지 5km이니까 엄청나게 커요. 선왕이 묻는 건 문왕의 동산이 사방 70리였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물으니까 맹자가, 실제로 그랬다. 선왕은, 그렇게 컸습니까? 맹자의 대답은 백성들은 오히려 좁다고 여겼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선왕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제가 가진 동산은 사방 40리에 지나지 않는데 백성들이 너무 넓다고 아우성이다, 도대체 어째서 그런 것이냐. 문왕의 동산 사방 70리에는 취유자왕언 취토자왕언. 취유자는 땔나무하러 가는 사람이고, 취토자는 토끼 잡으러 가는 사람이에요. 다른 견해가 있긴 있습니다만 일단은요. 백성들이 다 동산 속에 들어가서 땔나무도 해오고, 짐승도 잡아올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좁다고 여기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당신이 만들어 놓은 동산 사방 40리 안에는, 그 안에 사슴이나 동물을 죽인 백성을 살인죄와 똑같이 처벌한다고 들었다. 그러니 이거는 나라 한 가운데에다가 함정을 파놓은 것과 같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넓다고 외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시에서 나오는 것처럼, 경시영대(經始靈臺)라고 하는 시경에 인용된 시에 나오는 것처럼, 백성들 스스로 달려가서 문왕을 위한 누대, 동산, 연못 이런 것들을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실제로 백성들의 경제적 생활과 맞닿아 있고, 자신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니까 바로 그렇게 좋아하고 스스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해야겠죠. 그렇지 않고 임금을 위해서, 임금과 백성 간의 다른 의미의 친애, 친밀함 이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러한 경제적 이익을 백성들에게 보장해주는 임금에게 백성들이 이렇게 자식처럼 달려가서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게 문왕 이야기입니다.

문왕은 이랬고, 그 다음 이야기는 또 다른 임금 이야기가 나오죠. 湯誓曰 하고 나와 있는 대목을 보십쇼. 湯誓曰, 탕서는 서경의 편 이름입니다. 탕'誓'라고 되어 있느데, 탕임금이 이제 중국에서 최초로 혁명을 일으켜서 그 이전의 걸왕이죠, 하나라의 마지막 임금이었던 걸왕을 탕임금이 쳐부수고 새로 상이라는 나라를 세웠죠. 걸왕은 하나라 마지막 임금이고, 탕왕이 상이라는 나라를 세웠다. 상은 은이라고도 합니다. 세웠는데, 탕임금이 바로 정벌하기 직전 군사들을 모아놓고 훈시한 게 서(誓)입니다. 서경의 서(誓) 그러면 전모고훈서명 이래 가지고 서(誓)하면 서경의 육체라고 하는데요, 여섯 가지 문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서(誓)는 군사들을 모아놓고 훈시하는 내용입니다. 서경의 내용이 대체로 온화한 내용들이지만 誓는 상당히 살벌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서 같은 문장은요, 감이라는 곳에서 우임금의 아들 개가 군사들을 모아놓고 훈시하는 내용을 보면요, 용명상우조. 용명은 명령을 따른 자, 명령을 따르는 자는 조상의 사당에서 상을 내릴 것이지만, 불용명,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육우사, 사직에서 죽일 것이다. 여즉노륙여, 내가 너희들을 노륙할

www.artnstudy.com

것이다, 그런 이야기에요, 노륙. 戮은 죽인다는 주륙한다는 그런 뜻이고, 노는 처자 노장입니다. 당사자만이 아니라 처자식까지 다 죽일 것이다, 그런 과격한 표현이 나오는 게 서에요. 전쟁하기 전에 군대를 모아놓고 훈시하는 내용이니까요. 그런데 탕서에 나오는 내용을 맹자가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시경을 인용한 건, 시는, 앞에서 시, 그랬죠. 보충설명이 좀 필요하고, 이거는 湯誓曰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誓거든요. 유가에서는 일단 맹자도 그렇고 공자도 그렇고 일단 시서의 전문가들입니다. 이 시서가 유가 텍스트에요. 유가의 교과서입니다. 그리고 정치를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문헌이기도 하고요. 이른바 여기 나오는 우리가 보는 맹자라는 책은 유가 텍스트가 아닙니다. 그냥 제자서 정도로 간주되었죠. 그래서 진시황의 분서갱유의 목록에도 없었어요. 맹자하면 그냥 제자서고, 한나라 때 조기가 최초로 주석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상당히 뒤에 주석서가 나왔던 책이고요. 맹자가 탄압을 많이 받은 책입니다. 제가 강좌 소개할 때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만, 당나라 태종이 맹자, 이 늙은이, 이 정도 이런 과격한 표현을 하고요, 과격한 임금들이 대체로, 주원장도 상당히 과격하죠.

주원장하면 절에서 청소하다가 황제가 되었거든요. 굉장하죠, 굉장하긴 한데, 어쨌든 절에서 청소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사천왕상 다리 밑 청소하는 게 제일 힘들었대요. 주원장이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사천왕상 다리를 다 들게 했죠. 지금 중국에는 사천왕상이 다리를 다 들고 있다고 해요. 제가 가서 일일이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황제가 말 한마디 하니까 다 들게 되었어요. 우리나라도 같습니다. 누가 뭐 어쩌고 하니까 전봇대 뽑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임금이 아니라 한 나라를 대표하는 치적으로 전봇대 2개 뽑은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주원장이 한 마디 하니까 사천왕상 다리를 다 들어 버렸어요. 꼭 그런 군주들이, 한나라 무제도 그렇고, 진왕 정도 그렇고, 젊어서 임금이 되고 이러죠.

당나라 태종도 16살 때에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당 태종이 이세민이죠. 당고조는 이연이죠. 그런데 이연은 어떻게든 수양제에게 충성을 하려고 하지, 반란을 일으킬 생각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당태종이 계속 부추긴단 말이에요. 나이가 16살밖에 안 되니 아무리 부추기고, 아무리 들고 일어나 봤자 사람들이 잘 안 따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버지가 영 귀족들에게, 황제에게 충성할란다 이러니까 영 골치 아프죠. 그래서 이세민이 꾀를 내어 궁녀를 훔쳐가지고, 납치해가지고 자기 아버지 침실에 넣어버리죠. 아버지가 처음에는 아이고 좋다, 이러고 자고 나서 알고 보니까 황제의 여자를 건드린 꼴이 되어버린 거여요. 할 수 없이 반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게 되었다. 어쨌든 그때 당태종의 나이가 16살인가 그렀습니다. 진시황 정도 진왕이 되어서 왕 될 때가 16살인가 그렇고요. 그 때 확 뒤집어 버리면 그런 게, 한나라 무제도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임금이 되었죠. 절대권력을 휘두르는 게, 어렸을 때부터 임금이 되어서, 오랜 기간 동안 권력을 장악하고, 또 오랜 기간 동안 집권을 하다 보니까 저절로 권력이 집중되고,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일어났다고 해야겠죠. 조금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 내가 너와 함께 같이 죽으리라

www.artnstudy.com

어쨌든 탕임금이 군사를 모아놓고 훈시를 하면서 한 이야기가 그 밑에 바로 나오죠. 시일갈상(時日害喪)고, 이놈의 해는 언제 없어질까, 이런 이야기죠. 서경에서는 때 時자가 나오면, 이 時자가 이것이라는 대명사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時日은 이 해, 이놈의 해입니다. 日, 태양이죠. 태양은 군주를 상징합니다. 임금입니다. 일찍이 걸왕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하냐면, 내가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오유천하, 내가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천지유일, 하늘에 태양이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일망, 이 놈의 해가 사라져야, 해가 사라지면 해가 망실되면 나도 같이 망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일망 오내망,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또 해가 태양이 군왕의 상징인 것은 예부터, 저 서구도 마찬가지죠. 파라오도 태양신이구요. 다 태양신이죠. 그렇게 임금의 상징이었는데, 이놈의 해가, 害喪고, 언제 없어지나. 害자로 되어 있는데 '갈'로 읽습니다. '어찌'라는 뜻으로 읽는데, 또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만, '할'로 읽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고요. 이놈의 해가 언제 없어지나, 갈상(害喪)입니다. 시일갈상(時日害喪), 언제 없어지나. 해가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도 살 수가 없게 되죠. 농사를 지을 수 없을 것 아닙니까.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급여해망(予及女偕亡)여, 내가, 及女,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偕亡, 같이 죽으리라. 너 죽고 나 죽자는 이야기죠. 앞의 문왕은 대지조수(臺池鳥獸)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대지조수를 백성들이 만들어 준 것이고, 뒤의 걸왕은 이른바 주지육림(酒池肉林)의 소유자였지만,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것인데, 백성들과 함께 즐기지 않고, 혼자 즐겼기 때문에 백성들이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民欲與之偕亡, 마지막 문장을 한 번 보십쇼. 湯誓曰 時日은 害喪고, 이 놈의 해는 언제 사라지는가. 予及女偕亡, 내가 너와 함께 같이 죽겠다고 하니. 民欲與之偕亡, 백성들이 그 사람과, 통치자와 함께 죽기를 바란다면. 雖有臺池鳥獸 , 비록 대지조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豈能獨樂哉, 어찌 홀로 즐길 수 있겠습니까. 獨樂입니다. 이때 독락은 우리나라 선비들의 고아한 즐거움이 아니고 임금 혼자 즐기는 겁니다. 임금 혼자 아름다운 음악 연주하고 호화롭게 살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맹자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바로 앞의 왕도라고 하는 게 백성들의, 뭐 지금 민주사회에서의 자발적 참여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기는 곤란하고요, 다만 백성들의 향배가 정치에 대단히 중요한 변수가 된 거죠, 이때부터. 백성들의 정치적 영향에 주목한 것이 공맹입니다. 그런 백성들의 향배가 왕도냐 혁명이냐를 가름하는 기준이 된다는 걸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문왕처럼 백성들이 달려가서 세워주는 경우에는, 왕도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 걸왕처럼 주지육림하고 자기 혼자서만 즐기고, 이렇게 되면 탕임금 같은 대행자가 나타나서 뒤집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맹자의 전편에 깔려있는 논리이고요. 단호하죠. 그게 바로 이번 주제인데, 왕도와 혁명의 사이를 가름하는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거기까지 보고, 잠시 쉬고 다시 보겠습니다.

www.artnstudy.com